

디자인진흥원사

- 영상자료실 개관
- 중고교 미술교사 디자인 교육 실시
- 《세계 일류화 상품 디자인 비교 전시회》개최

한국 디자인사

- 롯데월드 캐릭터 표절 시비
- 『디자인비즈니스』 창간
- 《독일 바우하우스전》 개최
- 한국대학생디자인협회 창립
- 『코스마』 창간
- 윤디자인연구소 설립
- 212디자인 설립
- 공한제 발표
- 프론트디자인 설립

한국 사회사

- 국외여행 전면 자유화
- 문익환 목사 방북
- 아시아나항공 첫 취항
- 24시간 편의점 개장(세븐일레븐)
- 롯데월드 어드벤처 개장

포장 산업 대표 행사:
서울팩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치르며 세계화에 눈을 뜬 한국은 제품 생산에 있어 과거와 같은 대량생산뿐 아니라 다품종 소량화와 개성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다. 포장도 이에 따라 상품의 고급화를 위한 질적 향상, 유통상의 편리성 추구뿐만 아니라 원가 절감, 판매 경쟁력 강화 등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감지한 정부는 상품의 품질 향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유통의 합리화로 기업의 경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선진국 및 수출 경쟁국과의 수준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게 된다. 바로 1989년 열린 《서울팩 89》이다. 이 전시의 전신은 KIDP 설립 초기에 열린 《코리아팩(Korea Pack)》(국제포장기자재전)으로, 1971년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국립과학관 전시홀에서 개최된 이후 1985년과 1987년에 비정기적으로 열리다가 1989년에 ‘서울팩’으로 명칭을 변경, KIDP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우리나라 포장 산업을 대표하는 큰 행사로 발전한 것이다.

1989년 개최된 《서울팩 89》는 국내외 118개 업체에서 235개 품목의 포장 관련 기자재를 전시함으로써 1987년 대비 55%의 성장을 기록했다. 해외 참가 업체도 늘어 덴마크, 미국, 독일(서독),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 홍콩 등 10개국에서 55

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전시 품목도 포장 재료 및 용기, 포장 기계, 포장 재료 가공 기기, 물류 관련 기자재 등 국내외의 포장기자재 200여 종이 출품되었는데 150여 종 이상 출품된 포장 기계류가 주류를 이뤘다.

1991년에는 국내 업체 77개 364부스와 해외 업체 11개 24부스가 운영되었으며 상담 실적이 1,153억 원에 이르렀다. 1993년에는 국내 업체 100개 259부스, 해외 업체 40개 115부스를 설치해 420종을 출품, 448억 원의 상담 실적을 보였다. 1995년에는 국내 업체 50개 142부스, 해외 16개국 89업체 131부스로 137억 원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1997년에는 모두 16개국이 참여해 국내 51개 업체 204부스, 해외 65업체 115부스를 운영했다. 1999년에는 11개국 92업체 219부스로 내수 570억 원, 수출 15,647천 달러의 상담 실적을 냈다.

포장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바탕으로 개최된 《서울팩》은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의 새로운 포장 자재의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의 최신 정보를 입수하는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자사 제품의 품질 향상은 물론 해외 신규 거래 경로의 발굴,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종합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2014년부터 《서울팩》은 한국포장기계협회, KIP월간포장, 경연전람이 주최하는 《코리아팩, 국제포장기자재전》으로 통합되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³⁸